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1. 유엔특별절차 소식

유엔미얀마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회원국지지 호소

토마스 앤드류스(Thomas Andrews) 유엔미얀마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11일 유엔인권이사회 제46차 회의에서 군부 쿠데타로 인한 미얀마의 심각한 상황과 현재까지 입수한 정보를 확인된 내용을 보고하고,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다섯 가지 조치를 제시하였다. 이에 특별보고관의 발언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제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민간인 학살과 자의적 구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부는 매일 수백 명의 민간인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살해와 구금뿐만 아니라 시위참가자, 의료진,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군부의 모습이 포착된 동영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파괴하고, 상점을 약탈하면서 시위참가자들과 행인들을 무작위로 체포합니다.

이처럼 군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고 없이 시민들의 자택에 침입하고 인신보호영장이나 체포의 합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판 참여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군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언론의 자유를 완벽하게 억압하며, 노동조합 활동은 대부분 금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살해, 감금, 강제실종, 그 밖의 행위가 1) 일회성 사건이 아닌, 통합된 조직적 행동이고, 2) 군부를 공격하는 이들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3) 2천명 이상이 자의적 구금상태이고 전국 28개 구역 거주민들이 살해당하는 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4) 군지도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행위라는 점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회원국 연합이 다음 다섯 가지 조치를 검토하시기를 촉구합니다,

1. 미얀마 군부의 불법자금원을 차단: 군부가 소유, 운영하는 기업을 포함, 군 지도부와 그들의 주요수익원에 대한 다차제재를 실시해야 합니다. 미얀마 천연가스사업의 올해 수익금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제재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미얀마 군부는 무고한 국민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불법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자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사업의 수익이 군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제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41개국 이미 미얀마군부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조치를 내렸으나, 통합된 금지조치를 통해 군부를 대상으로 한 무기판매와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 민간과 군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 응용연구나 시험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핵심 기술)을 미얀마에 이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3. 조사 실시 및 소송 준비: 보편관할법을 가진 회원국은 이처럼 지속되는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미얀마의 고위군관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시민사회 및 원조기구와의 직접적 협력: 미얀마 군대를 통한 인도적 원조나 개발 원조를 중단하고 시민사회나 원조기구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5. 미얀마 군부를 합법적인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음: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합법적인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884&LangID=E>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식

유엔인권최고대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

세계여성의날은 여성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3월 8일로 지정되었다. 양성평등, 재생산권리,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은 여성인권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날이기도 하다. 올해 3월 8일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유엔인권이사회 제46차 회의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여성, 특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 여성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타고난 취약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수 세기에 걸쳐 유지되어 온 여성을 배제하는 사회, 정치, 경제적 제도로 인한 것이다.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이제는 방향을 전환할 때라고 말한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사회보장 투자가 증가하고 환경이나 기후정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여성 지도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업 성과가 향상되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을 지도부나 의사결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한다면 당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발제자의 22퍼센트만이 여성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전 세계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성은 회의의 25퍼센트, 고위 경영진의 29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활동에서 여성들은 상당부분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이 무관심하거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차별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차별로 인해 여성들은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부지를 소유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지 못한다. 또한 양육의 책임을 거의 대부분 떠안게 되고 양질의 교육이나 특정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된다. 폭력, 괴롭힘, 해로운 관행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여성이 사회에서 양육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으면서 주관이 뚜렷한 모습은 여성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러한 차별의 모습이다.

인권최고대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말한다. 여성이 기후변화, 사회보장, 의료서비스 등 중요한 분야를 주도하는 변화의 주역이 되는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이고 정의로우면서 지속가능한 포스트코로나19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858&LangID=E>

3. 인권 NGO 소식

국제 엠네스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인권관련 주요 성과 소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여성, 여아, 성소수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2020년 여성인권 관련 중요한 성과가 있었고 희망을 가질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아르헨티나의 낙태 합법화:** 수년간 인권운동가들의 캠페인 활동 덕분에 마침내 2020년 12월 아르헨티나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2. **성폭력 법의 개정:** 2020년 12월 덴마크 의회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수년간 여성인권운동가 및 생존자 단체들이 조직적 캠페인을 벌인 결과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덴마크는 폭력, 위협, 강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하는 이전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3. **동성혼의 합법화:** 2020년 코스타리카는 중미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최초의 동성커플의 결혼식이 있었다. 가봉은 합의에 의한 동성간 관계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앙골라에서도 동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을 무효화했다. 이는 모두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치이다.
4. **직장 내 성소수자권리 보호:** 작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권법에 따라 성소수자들이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따른 고용상 차별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오랫동안 요구되어 온 민권법상 성소수자 평등을 인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보호 축소 움직임에 반박하는 판결이었다.
5. **여성인권운동가의 석방:** 2021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 여성인권운동가인 루자인 알하틀룰(Loujain al-Hathloul)이 3년 만에 석방되었다. 루자인은 여성의 차량운전에 대한 정부 제재를 무효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남성후견인법(male guardianship law)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다.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수감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대표적 운동가 중 한 명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축하할 만하다.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1/03/10-positive-developments-for-womens-rights-2021/>

4.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인권위원장, 유네스코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 참석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여 3월 22일 오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UNESCO) 주최로 열린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Global Forum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에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이번 국제포럼의 장관급 회의에서 최영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의 확산에 맞서 추진한 3대 전략과제인 인식개선 및 공론화, 자율대응 확산, 혐오표현 대응의 제도화의 성과를 발표하고, 혐오와 차별의 근절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에서 관계 장관이 참여하여 각국의 모범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번 국제포럼은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혐오 차별 대응 논의 등을 선도해 나가는 우호국 그룹을 기반으로 유네스코에서 출범. 우호국 그룹에는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필리핀, 세르비아, 세네갈이 출범 회원국으로 참여.

이 지난해 12월 7일 제21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채택된 '인종차별 반대 결정문' 및 부속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적 요구(Global Call against Racism)'에 부응하여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인종차별 대응 로드맵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욱 심화된 혐오표현은 전 세계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인권위는 이번 유네스코 국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인종차별을 비롯한 혐오표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엔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색인종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서 활동할 때 통행권을 소지하고 불시에 경찰조사를 받도록 한 통행법(pass law)의 폐지를 요구하다 목숨을 잃은 시위대를 기리면서 이 날을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로 지정했다.

유네스코는 이 날을 기념하여 본부와 현지 사무소에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왔다. 인종차별철폐 노력은 유네스코의 평화구축사업의 핵심적 요소이다. 유네스코는 관용에 대한 교육, 인종주의적 고정관념의 근절 등을 통해 인종주의와 차별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https://en.unesco.org/commemorations/nodiscriminationday>

5. 유엔 주요회의 일정

일 시	회의 명
2021/3/29-4/1	유엔고령화실무그룹 제11차 회의
2021/5/3-5/14	보편적 인권정례검토 실무그룹 제38차 회의
2021/5/17-5/21	발전권 실무그룹 제21차 회의
2021/6/21-7/9	유엔인권이사회 제47차 회의
2021/9/13-10/1	유엔인권이사회 제48차 회의
2021/11/1-11/12	보편적 인권정례검토 실무그룹 제39차 회의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